

경남지역 수산업의 현황과 수산고등학교의 역할

김 도 균

(거제수산고등학교)

I. 머리말

최근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이후 원양에서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연안지역에서도 남획에 따른 자원의 감소 및 어장의 환경오염과 황폐화때문에 수산물의 생산량이 감소되어가므로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가 낮아져 점차 산업적 측면에서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과 공업화의 결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필요한 인력도 점차 늘어나 수산업에 종사하던 인력마저도 임금 수준이 높고 복지 시설이 좋은 기업으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젊은이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적고 장래 전망도 불투명한 농어촌을 벗어나려고 하므로 어촌은 점차 낙후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것의 결과로 수산계 고교 진학 희망자 학생수도 急減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소재한 수산계 고교는 학생 모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수산업과 관련된 교과에 관심이 낮고 장차의 진로에 있어서 초차 수산·해양生産과 연관된 직종에 종사할 포부를 가진 경우가 드물다.

수산업이 3D 업종이기 때문에 고교를 진학할 연령의 학생들도 본인이 원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득이 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부형은 수고 졸업후 대학진학을 바라며 승선 취업 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수산업 교육은 더욱 어려워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하며 학업 의욕도 낮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회의적이고 수산업에 관련된 업종의 취업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산 인력의 확보를 위해 애를 쓰고는 있지만 노력에 대한 결실이 미흡하므로 차츰 수산업 교육에 대한 열의가 식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慶尙南道의 수산업 현황과 수산계 고교의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수산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우수한 수산인을 양성하여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활기있고 바람직한 수산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Ⅱ. 경상남도 수산업의 현황

1. 일반 현황

1) 해양 환경

慶尙南道는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울산시와 같이 동해에 면해 있는 東岸 海域은 해저 경사도가 크고 대륙붕 면적이 좁아 외해쪽의 풍파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南岸 海域은 해저 경사도가 적고 완만하며 島嶼로 둘러싸인 곳이 많아 風波에 안전한 수역이 많다.

연중 쿠로시오의 지류인 쓰시마해류의 영향을 받으나 겨울철에는 東岸해역에서 하층부에 한류세력이 미친다. 따라서 울산시와 같이 東岸 해역은 한류성 어족이 많고 그 외의 해역에서는 수산생물의 종류와 분포가 다양하다. 반면에 남안 해역은 서해보다 빠르지 않은 조류, 동해에 비해 깊지 않은 수심은 여러가지 어종을 대상으로 정치망어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양식 어업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상종도 매우 다양하다. 慶尙南道의 연간 기온 분포는 $-12^{\circ}\text{C}\sim 36^{\circ}\text{C}$ 이고 1월에는 최저 기온을, 7월~8월에는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표층 수온의 연간 분포는 $3^{\circ}\text{C}\sim 30^{\circ}\text{C}$ 이며 최저 수온은 1월~2월, 최고 수온은 8월에 나타난다. 간만의 차는 최대 80cm~360cm 정도로 동해안 쪽은 작고 서해안 쪽은 갈수록 커진다.

저질은 東岸 海域은 자갈이나 바위로 되어있는데 반해 南岸 海域으로 갈수록 泥質 또는 沙泥質로 되어 있어 이 해역에서 패류의 양식이 활발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상남도 해안 지역의 공업화로 인해 방출되는 공업용 오폐수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 하수의 증가로 해양 오염이 심각하며 이는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이 지역의 오염은 매년 적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여 그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양 환경을 미리 예측하지않고 개발하는 매립지 등도 해양 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특히, 울산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등 공단 지역이 있는 곳은 날이 갈수록 그 피해가 심각하며, 마산만의 경우 전국 최대의 오염 지역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5ppm이 넘고있는 실정이다.

2) 지역별 수산업의 특성

울산시, 양산시 등이 있는 東岸 海域은 전복, 미역, 우렁쉥이 양식이 성행하며 어로 어업은 명태, 새우, 대형 정치망 어업 등이 있다.

김해시와 가덕도를 포함한 진해 해역은 김 양식이 성행하였으나, 낙동강 하구언으로 인해 해양 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성이 나빠짐은 물론 이들 양식업의 존폐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어로 어업도 해양 환경의 조건이 나빠져 그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만 일대에는 피조개, 굴, 진주담치 양식이 성행하며, 특히 피조개는 삼천포, 고성군, 남해군 일대까지 연결되는 수역에서 대량 양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 수역에서는 계속되는 연작의 결과로 노폐물이 축적되는 등 저질의 노화를 가져와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 이 수역에서는 과거에 대구가 대량

어획되었으나, 어자원의 감소와 해양 환경의 파괴 등으로 최근에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거제시, 통영시 지역의 굴, 우렁챙이 양식은 세계 굴지의 생산 단지로서 생산량과 양식 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 수역에서는 전복 양식 등도 활성화되고 있다. 慶尙南道 전역에 걸쳐 행해지는 멸치 어업은 권현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서해안 쪽이 가까운 남해, 삼천포 일대의 정치망에서도 일부가 생산되고 있다.

2. 업종별 수산업 현황

慶南道의 수산업 현황은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그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규모와 경남도의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1>에서 <표 9>까지는 1995년 수산연감(한국수산회)의 통계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이를 비교하면 어로 어업과 양식 어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업 생산은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1) 수산물 생산

<표 1> 연근해 어업 생산

구 분	어 류	갑 각 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 조 류	계
전 국	987,429	134,558	327,290	10,181	26,899	1,486,357
경 남	241,626	8,225	39,391	2,215	3,180	294,675
점유율(%)	24.47	6.11	12.04	21.76	11.82	19.83

<표 1>은 연근해 어업 생산에 있어 어류는 경남도의 어선 세력 점유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산량으로 24.47%를 보이고 있다. 해조류와 갑각류는 동해나 서해에서 많이 생산되는 탓에 6.11%로 그 점유율이 낮은 것 같다.

<표 2> 천해 양식 어업 생산

(단위 : 톤)

구 분	양식 패류	양식 해조류	양식 어류	계
전 국	264,124	750,197	6,643	1,020,964
경 남	155,599	240,320	2,188	398,107
점유율(%)	58.91	32.03	32.94	38.99

<표 2>의 천해 양식 어업은 경남도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패류는 거제, 통영 지방의 집중적인 굴 양식으로 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양식에 적합한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 좋은데다 생산물의 운송 및 판매를 위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좋은 것도 그 이유이다.

<표 3> 내수면 어업 생산

(단위: 톤)

구 분	어로어업 생산	양식어업 생산	계	* 어 업 권	* 양 식 장
전 국	10,041	20,865	30,906	5,822	2,476
경 남	1,272	719	1,991	804	271
점유율(%)	12.67	3.45	6.44	13.81	10.95

<표 3>을 보면 경남도는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있는 湖沼나 江의 면적이 다른 地域에 비해 적어 어로 어업 생산량이 12.67%이고, 특히 양식 어업 생산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의 3.4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수면 어업권의 수가 804개로 13.81%에 불과하고 양식장의 수도 271개소로 10.95%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표 4> 수산 가공품 생산

(단위: 톤)

구 분	소 건 품	양식어업 생산	자 건 품	염 장 품	염 신 품	통 조 립	냉 동 품
전 국	14,694	1,191	24,473	95	10,594	63,899	1,301,482
경 남	154	.	14,292	14	836	44,314	42,552
점유율(%)	1.05	0	58.40	14.74	7.80	69.35	3.27

구 분	해조 제품	한 천	연 제 품	조미가공품	어 유 분	기 타	계
전 국	117,376	393	108,717	12,278	47,729	11,590	1,714,511
경 남	624	277	21,451	7,628	3,050	4,830	140,022
점유율(%)	0.53	70.48	19.73	62.13	6.39	41.67	8.17

<표 4>를 보면 수산의 가공품 전체적인 점유율은 8.17%에 불과하지만 자건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것은 경남의 멸치 권현망 어업이 발달한 것이 그 원인이며, 통조림 생산이 69.35%가 되는 것과 조미 가공품의 생산이 62.13%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관련 수산물의 생산량이 많은 까닭도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가공 시설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어업권

<표 5>에서 <표 7>까지는 경남도의 어업권에 관한 통계자료로서 우리나라 전체 수면적에서 차지하는 경남도의 점유율을 비교해 본다.

<표 5> 연안 어업 면허, 신고, 허가 현황

구 분	면 허 어 업				신고 어업	허가 어업	계
	제1종 공동어업	제2종 공동어업	제3종 공동어업	정치망 어업	외줄낚시, 맨손, 나잠, 문어단지, 손꽂치, 호망, 건간망, 투망	새우조망	
전 국	1,964	28	792	635	58,469	60,652	122,540
경 남	549	6	180	214	4,863	17,989	23,801
점유율(%)	27.95	21.43	22.73	33.70	8.32	29.66	19.42

<표 6> 근해 어업 허가 현황

부 산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803	460	145	897	300	752	1,058	931	1,792	621	7,759
10.35	5.93	1.87	11.56	3.87	9.69	13.64	12.00	23.10	8.00	100%

<표 7> 양식어업권 현황

구 분	패 류	해 조 류	어 류	기 타	계
전 국	4,300	2,627	1,104	557	8,558
경 남	1,271	123	358	253	2,005
점유율(%)	29.56	4.68	32.43	45.42	23.35

우리나라 전체의 수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표 5>의 연안 어업에 관련해서 경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소규모인 신고어업을 제외한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은 우리나라 총 어업권의 25%이상을 차지하며 <표 6>의 근해 어업도 23%를 차지한다.

<표 6>의 근해어업 허가는 업종별 정수가 13종으로 대형기선 저인망(쌍끌이, 외끌이), 중형기선 저인망, 근해 트롤, 기선 선망, 근해 채낚기, 기선 선인망, 근해 유망, 근해 안강망, 잠수기, 근해 통발, 근해 형망, 근해 연승, 근해 봉수망 등이다.

<표 7>의 양식 어업권은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 생산이 적어 낮은 비율을 보이거나 다른 부문에서의 점유율은 30%이상이 된다.

3) 어업 종사자 및 어선 세력

<표 8> 어업종사자수

구 분	어선어업	양 식 업	채조채포(자연산)	계
전 국	70,617	81,550	46,615	197,782
경 남	18,321	15,558	1,950	35,829
점유율(%)	25.94	19.08	4.18	18.12

<표 9> 어선 세력

구 분	척 수	톤 수	마 력 수	계
전 국	77,391	940,321.75	8,134,917	12.15
경 남	17,713	105,111.50	1,554,291	5.93
점유율(%)	22.89	11.18		

<표 8>의 어업 종사자 수 및 <표 9> 어선 세력은 어업 생산량이나 어업권의 전국 점유율에 비해 낮는데 이것은 간석지의 면적이 서해에 비해 작아 자연산 채조, 채포 어업 종사자가 적기 때문이다.

4)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

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어업인의 수가 줄어들고 연안어장은 오염으로 또는 자원의 고갈로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업인 후계자의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어업인 후계자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해 자영수산과를 신설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 <표 10>에서 <표 14>까지는 경남 지역의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어업인 후계자 육성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81~'90	'91	'92	'93	'94	'95	'96
선 정	1,671	835	32	207	202	131	132	132
중도포기	200	189	.	6	5	.	.	.
현재인원	1,471	646	32	201	197	131	132	132
지 원 액	19,887	5,727	416	3,015	2,955	2,415	2,423	2,936

* 지원 기준(통합 실시 요령) : 1인 15 - 30백만원('96년 현재)

* 중도 포기 : 사망 9, 기반 상실 28, 전업 49, 무단 이탈 46, 이주 22, 불법 어업 32, 기타 14

<표 10>은 1981년 이후부터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와 중도 탈락자 및 연도별 지원 금액인데 '92년과 '93년은 그 수가 많아졌으나, 중도 탈락자도 많은 것으로 보아 마구잡이식 선정 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표 11> 어업인 후계자 해외 연수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연수인원	12	20	39	30	33
연수비용	11,000,000원	25,399,000원	34,410,000원	35,400,000원	33,758,000원
연 수 국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표 11>은 경남도가 어업인 후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비용 전부를 도에서 부담하고 금액도 점차 증액되고 있다.

<표 12> 1996년도 성별, 연령별 어업인 후계자 인원

구 분	합 계	결 혼 여 부		년 령 별				
		기 혼	미 혼	19세이하	20-24	25-28	30-34	35-40세
합 계	132	85	47	.	5	42	66	19
남	126	79	47	.	5	42	61	18
여	6	6	5	1

<표 12>는 연령별 분포를 조사한 것으로 이미 어촌에 정착한 기혼자 수가 미혼자 수보다 많다.

<표 13> 1996년도 학력별 어업인 후계자 인원

구 분	합 계	국 출	중 출	소 계			수 산			기 타		
합 계	132	9	31	66	10	56	23	15	8	3	1	2
남	126	8	29	64	10	54	22	15	7	3	1	2
여	6	1	2	2	·	2	1	·	1	·	·	·

<표 13>를 보면 1996년에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 132명 중 수산고등학교 출신은 10명으로 17.9%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거제수고와 남해수고 졸업생이다. 어업인 후계자의 선정에 있어 선발 기준이 수산계 출신에 대해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다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다.

<표 14> 사업 작목별 지원 대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어류축양	해조류양식	어패류양식	기 타
인 원	132	72	15	1	32	12
금 액	2,936	1,569.2	376	28	683.8	279

<표 14>의 사업 작목별 지원 대상에서 어업인 후계자 132명 중 어선 어업이 72명(54.55%)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자영을 하기 위한 지원 자금이 부족하여 양식을 하지 못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경영이 가능한 연안 어로 어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표 15> 시장기구 현황

구 분	도매법인	공 판 장	위 판 장	공동어시장	직 매 장	계
전 국	16	10	202	1	91	320
경 남	2	1	46	·	3	52
점유율(%)	12.5	10	22.77	0	3.30	16.25

<표 15>는 1995년 수산연감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경남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도시가 거의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지가 곧 소비지이므로 유통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인근 지역인 부산에 대형 어시장인 공동 어시장이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수산 시장이 많지 않다.

Ⅲ. 경상남도 수산계 고등학교 현황

경남도는 거제수산고등학교와 남해수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 모두 공업계열 학과가 있어 순수 수산고등학교는 아니다.

거제수고는 1953년 인문계열인 거제 제일고등학교로 문을 열었다. 1965년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천으로 거제수산고등학교로 교명과 학제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제 41회, 총 6,14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였고, 남해수고는 1938년 개교하여 제 55회, 총 7,3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두 학교의 일반 현황과 졸업생 및 교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기로 한다.

1. 일반 현황

1) 학급 편제 및 학생수

<표 16> 학급 편제 및 학생수 1996. 10. 20 현재

학 과	학 년	1		2		3		계	
		학 급 수	학 생 수	학 급 수	학 생 수	학 급 수	학 생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거 제 수 산 고	어 업 과	1	43	1	34	1	40	3	117
	동 력 기 계 과	2	94	2	83	2	81	6	258
	자 영 수 산 과	1	39	1	29	1	29	3	97
	조 선 과	1	51	1	41	1	53	3	145
	계	5	227	5	187	5	203	15	617
남 해 수 산 고	어 업 과	1	21	1	12	1	15	3	48
	동 력 기 계 과	1	28	1	13	1	6	3	47
	양 식 과	1	24	1	9	1	7	3	40
	전 자 과	1	39	1	40	1	12	3	91
	계	4	112	4	74	4	40	12	226
경 남 합 계		9	339	9	261	9	243	27	843

2) 교직원 현황

거제수고는 교직원 총 수가 59명인데, 이는 교장 1, 교감 1, 인문교사 16, 실과교사 18(수산 15, 조선 3), 일반직 20(선박직 8)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평균 연령은 38.4세, 교육 경력은 11.3년이다.

남해수고는 교장 1, 교감 1, 인문교사 12, 실과교사 15(수산 11, 전자 4), 일반직 28(선박직 14)으로 조직되어 있다. 남해수고 교사의 평균 연령은 37.4세, 교육 경력은 11.8년이다.

3) 지역 실태

(1) 거제수고

학생의 가정은 연안 영세어업에 종사하는 반농, 반어촌이거나 그의 부모가 조선 관련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다. 결손 가정이 많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한 열의가 낮아 학생에 대한 무관심 가정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농어촌 실정이라 집안의 농사일과 어업일을 돕는 학생도 많다.

재학생이 섬 전체에 분포하여 원거리 통학생이 많고,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 의욕도 낮은 편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다.

(2) 남해수고

학생의 가정 환경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

습 습관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나 형제들이 본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아 자녀를 수교에 보내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편이지만 지역 주민과 졸업생들은 향토애가 강하여 학교 발전에 기대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원 확보에 애로가 많아 신입생을 모집하는 시기에는 교사들이 군외 지역으로 나가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군외 지역 출신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

2. 졸업생수 및 교사 변동

최근 9년간 졸업생 수 및 교사 이동 상황에 관계되는 자료를 참고로 해 보면 경남도의 수산고등학교가 얼마나 활력을 잃어가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7>과 <표 18>을 보면 1990년을 기점으로 학생수와 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수가 1988년 부터 1990년 까지 5명씩이나 갑자기 증가한 것은 당시 사범대생들의 교사 임용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의 결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남해수산고등학교는 그 소재지가 군이라 인구가 감소하고 신입생 수도 줄어들었다. 1990년 졸업생이 279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994년에는 급감하여 졸업생이 72명에 불과하고, 1995년에는 학교의 존속을 위한 탈바꿈으로 신설한 공업 계열인 전자과 졸업생을 37명 배출하였다. 그러나, 경남도의 농어촌 지역 전반에 걸친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신설학과인 전자과 학생수도 정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어업과, 동력기계과, 양식과 등은 더욱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학급도 감축되고, 그 결과로 실과 교사의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어업과 3학급(1개 학년 1학급씩), 기관과 6학급이 감소하였다.

거제수고는 1992년과 1993년에 신입생의 모집에 애로가 있었고 그 결과 1995년의 졸업생 수가 191

<표 17> 졸업생 현황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거 제 수 산 고	어업과	54	50	49	43	40	38	37	15	17
	동력기계	50	49	49	79	85	82	85	51	66
	자영수산	34	31	16	32
	조선과	147	132	138	82	84	41	49	45	50
	계	251	231	236	204	209	195	202	127	165
남 해 수 산 고	어업과	91	72	94	94	83	84	25	7	11
	양식과	28	51	47	47	31	25	12	9	8
	동력기계	139	136	138	131	109	63	35	11	19
	전자과	37	25
	계	258	249	279	282	223	172	72	64	63
합 계	509	480	515	486	432	367	274	191	228	

<표 18> 실과 교사 이동 상황

학과 연도	거제수산고등학교						남해수산고등학교						실과 교사 증,감
	어업과		동력기계과		자영수산과		어업과		양식과		동력기계과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1988	1	2	·	1	·	·	2	2	1	·	1	1	+1
1989	·	·	·	1	·	2	1	1	·	·	1	1	+3
1990	·	·	1	1	·	1	·	·	·	·	1	1	+1
1991	·	·	·	·	1	1	1	·	1	1	3	·	-4
1992	1	1	·	·	·	1	1	·	1	·	2	·	-3
1993	·	·	1	·	1	·	1	1	2	·	1	·	-5
1994	·	·	·	·	·	·	·	·	·	·	·	·	·
1995	1	2	2	1	·	·	2	1	·	·	1	1	-1
1996	2	2	2	1	·	·	2	2	·	·	1	1	-1
합계	8	9	6	6	2	5	12	9	5	1	11	5	

명으로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다시 거제 내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학생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1997학년도 부터는 거제시 전체의 학급수 증가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1988년 이후 경남도의 실과 교사는 총 13명이 감소하였다.

IV. 수산고등학교의 역할

1. 문제점

1) 신입생 유치

남해수고는 군내 출신만으로 정원을 채우기에는 학생 자원이 부족하므로 타 지역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기숙사를 새로 증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 않다.

거제수고는 남해수고와 마찬가지로 1990년을 기준으로 신입생 지원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1995년에는 졸업생이 127명으로 최저이다. 거제시의 공업화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신입생이 증가되어 다소의 변동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큰 애로점은 없었다. 그러나, 거제 시민의 오랜 소망인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요구에 따라 경남도 교육청은 거제시에 중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97학년도 부터 6학급(3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거제수고는 현재 학생 정원을 겨우 충당하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1997학년도 부터는 정원 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 진로 선택의 제한

<표 19>에서 보면 남해수고는 학생수가 적은데도 항해사와 기관사의 합격율이 높고 거제수고는 매우 낮다. 이것은 학생의 질이 남해수고가 거제수고생보다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남해수고생의 면허 취득

<표 19> 해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

학교	항 해 사			기 관 사			양식기능사 (2급)	기관정비 (2급)	선체조립 (2급)	선박제도 (2급)	전자조립 (2급)
	4급	6급	6급	4급	5급	6급					
거제수고		3		1	8		23/23	74/77	34/35	12/12	
남해수고		13			3		7/7	6/6			12/12
계		16		1	11		30/30	80/83	34/35	12/12	12/12

에 관한 욕구가 강하고 1학급당 학생의 수가 적어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남해수고생의 면허 취득 욕구가 강한 이유를 보면 남해 지역은 선장, 기관장 출신이 많고 이들의 자수성가한 모습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까닭에 학생들이 자극을 받아 자신의 성공에 대해 열망하는 분위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거제수고는 학교 주변에 대형 조선소 등이 있어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제수고생은 힘들고 거친 승선 생활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양교를 이동하면서 동과목과 동학년의 수업을 진행해 본 교사들의 경험에 의해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거제수고생은 대부분이 본인이 수산계 업종 취업을 위해 본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기를 꺼린다. 수산·해운업계 쪽으로 직업 선택의 폭이 한정되어 있는 수산계 진학을 꺼리는 원인이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제수고에서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3) 교사의 사기

경남도의 인사 규정은 실과 교사가 한 학교에서 최고 8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표 18>은 실과 교사들의 진출, 전입이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과 교사 증감을 제외한 진출, 전입은 남해수고에서 거제수고 또는 그 역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경남의 수고는 비교적 오지에 위치해 있고 양 학교는 모두 섬 지역이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생활 근거지와 너무 떨어져 생활하게 된다.

승진에 반영되는 벽지 근무 점수도 얻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화, 교통, 의료 등의 혜택도 없는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불편은 물론 연한이 되면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교사 감원 등의 기회가 오면 젊은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수고에서 떠나려고 한다.

또한, 신입생 유치 활동, 학생들의 질적 저하에 따른 수업 및 연구 활동 의욕의 저하, 승선 실습 지도에 대한 부담과 같은 심리적 요소도 수고에 근무하는 실과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4) 학생 수준

거제수고와 남해수고에 재학하는 전체 학생의 학업 성적을 보면 중학교 내신 성적 평균은 90% 정도로 학업 성취도가 매우 낮아 기초 과목은 물론이고 응용 과학 분야인 수산, 해양 관련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능 인력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위한 학습보다는 자격 취득에 치중한 학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5) 실습선의 낙후

경남도 교육청에는 승선학과의 승선 실습을 위해 거제수고 실습선인 '부산404호(구 77 거수호)'와 남해수고 실습선인 '남수호'가 있다. 현재는 2척의 배 중 선령이 적고 승선 인원이 많은 남수호로 양교가 공동실습을 하고 있다. 부산 404호는 매각을 위해 대기하는 실정으로 학생 실습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건조 당시의 실습 정원이 40명인 남수호는 여러 가지 사유로 실습 정원을 50명이 되도록 개조하였다. 그러나 150톤급인 실습선 '남수호'를 50명이 실습하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다.

청수 탱크 용량, 화장실, 식당(강의실) 크기, 침실, 갑판의 넓이, 거주 공간 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남수호는 양교의 실습을 위해 1995학년도 부터 연간 120일 정도를 운항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습선이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관리가 부실하여 노후가 심하다는 것이다. 실습선을 시급히 신조해야 함에도 예산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졸업 후 승선 취업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승선실습을 나가기 전 보다 승선 실습을 하고 난 뒤에는 승선 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6) 선장, 기관장의 교사 자격자 임용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승선실습을 위해서는 선장과 기관장은 교사 자격증 및 3급 이상의 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수산·해양계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나 그에 관한 타당성의 여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경남도의 실습선 선장, 기관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의 교과 지도에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승선실습시 지도 교사가 전문 교과를 지도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선박의 특성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승선 관계자는 알고있다. 실습 지도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만 해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서는 선박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론적인 바탕이 있는 선장, 기관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산고등학교의 역할

과거, 각급 수산계 학교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 현재 수산업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전락하였지만, 단백질 식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중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다. 수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오늘의 수산업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그 발

전 가능성을 모색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수산계 고교의 역할을 파악하고 미래의 역할을 예측해 본다.

1) 현재의 역할

(1) 기능 인력의 양성

거제수고 학생은 남해수고 학생에 비해 해기사 면허 합격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거제수고생들은 남해수고생들에 비해 승선 취업을 통한 성취 의욕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 같다. 두 학교 학생들 모두 시험 과목이 이론이 아닌 실기 위주인 기능사 자격 시험에서는 그 취득율이 높다. 거제수고 학생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소 및 관련업체에 취업을 많이 하고있어 해기사 자격 취득에는 관심을 적게 가진다. 그래서 거제수고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수산업 관련업체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선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남해수고생은 현장실습을 전공 위주로 하고 있고 승선 취업도 많이 하는 편이다.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현장실습 현황을 <표 20>을 통해 살펴보면 학생들의 진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장실습 중 도중 이탈이 일어나고 있으나, 80% 정도는 실습현장에서 그대로 취업하는 추세이다.

<표 20> 현장실습 파견 현황

학 과	계	승 선	조선업체	양식업체	전자회사	기 타
거 제 수 산 고	어 업 과	40	8	28	.	4
	동력기계과	81	5	71	1	4
	자영수산과	29	.	4	20	5
	조 선 과	53	.	50	.	3
	계	203	13	153	21	16
남 해 수 산 고	어 업 과	15	15	.	.	.
	동력기계과	6	6	.	.	.
	양 식 과	7	.	.	7	.
	전 자 과	12
	계	40	21	.	7	12
경 남 계	243	34	153	28	12	16

(2) 해양 환경의 보호

수산·해양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보다 해양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지역 사회의 삶의 터전인 해양의 환경 보호를 위해 감시와 홍보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수산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2) 미래의 역할

(1)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정보화 사회를 맞아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변화도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직종이 각광을 받으며 생겨나고 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건강과 즐거운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수산계 고교도 과거에 해 온 것 처럼 해양 생산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해양 레저 등 수산·해양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발전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직업군을 생각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려 해상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남해수교와 거제수교는 해양 레저산업에 관련된 직업 및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스킨 스쿠버, 요트, 수상 및 수중 스포츠, 바다 낚시터, 해상 및 해중 공원 등을 예상하고 그에 해당되는 직업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지역사회 기능인력의 재교육 장소로 활용

학교에서는 많은 경비와 노력을 들여 설치한 고급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많이 사용할수록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선원들의 상위 해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전문성이 확보된 실과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부족한 해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상위 자격 취득을 원하는 해당 지역 거주 선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현재의 수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 정책적인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선원들이 부족하여 외국의 선원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1996년도에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 산업 기능 요원은 그 수가 대폭 줄어 56명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때, 우리 지역사회의 수산업과 수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남도의 수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의 수산업계 진출이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수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도 적고 이들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곳의 학생 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남해수교는 학생의 수가 급감하여 현실적으로 학교를 유지해 나가기가 벅찬 실정이다. 거제수교도 곧 학생의 수가 부족되는 사태가 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3D 업종인 수산업의 발전 및 현상 유지를 위해 거제수교와 남해수교는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헌도가 크다고 본다. 어업인 후계자와 같은 연안 양식어업을 위한 기능사, 선박 운항을 위한 해기사, 조선업계 등에 필요한 기능사를 양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수교의 교사들도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대하며, 21

세기를 살아갈 이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삶의 능력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및 수산관련 단체나 학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활력을 잃고 쇠퇴해 가는 수산고를 회생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교사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들이는 노력을 줄이고 소수의 학생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 정원을 30명 정도로 줄여야 하고,

2. 장차 나타날 수산·해양에 관련한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 검토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3. 쾌적한 환경으로 학습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새 실습실을 확보하여 승선학과 학생들의 승선의욕을 고취시키고,

4. 능률적인 승선 실습을 위해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장과 기관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5. 해기사 면허 합격자 전원이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자 수를 늘려야 하며,

6. 수산계 고교 교사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연수 등의 각종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현 가능성은 회박하지만 수산고등학교를 경남도에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두 학교를 병합하여 해안을 낀 대도시 주변에 학교를 이전 개교한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거제수산고등학교, 교육계획서, 1996.

경남신문사, 경남연감, 1995.

국립수산진흥원, 연안어장 기본 조사보고서,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 1988.

김동규, 자영 수산고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 개발, 수산해양교육연구, 창간호, 1988.

남해수산고등학교, 교육계획서, 1996.

수산공무원 교육원, 21세기를 향한 수산발전 토론회 결과 보고서, 1996.

이병기, 한국 수산업의 전망과 수산교육의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창간호, 1988.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1995.